

石器 組成比를 통해 본 靑銅器時代 生計經濟

孫峻鎬

한국고고환경연구소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石器 組成比의 變化와 그 意味 |
| II. 石器의 機能別 分類 | V. 맺음말 |
| III. 聚落別 生計類型 檢討 | |

I. 머리말

주지하다시피 청동기시대에는 대부분의 생활 도구들이 석기, 토기, 목기 등으로 제작되었다. 이 가운데 토기는 그 기능이 조리나 저장 등 주로 음식물과 관련된 행위에만 이용되며, 목기는 특수한 환경의 유적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다수의 자료를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당시인의 생활상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에 이용되면서 동시에 높은 잔존율을 보이는 석기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즉, 석기는 청동기인들의 실제적인 삶의 필요에 의하여 고안되었기 때문에 기능적 속성 파악을 통한 당시인의 생활방식이나 생계수단 등의 연구에 있어서 효과적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필자는 석기 분석을 통하여 청동기시대 취락의 생계유형을 검토하고 그 변화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석기만의 분석을 통해서 취락의 생계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지만, 고고학적 현상을 해석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가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본고를 작성하였다.

필자가 본고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분석 방법은 석기 조성비의 비교이다. 석기의 조성을 비교하는 데에는 특정 기종의 등장·형식변화·소멸 등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는 것과 개별 석기를 용도별로 분류하여 각 카테고리의 변화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¹⁾ 본고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택하고자 한다. 전자의 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기종의 등장과 소멸이지만, 청동기시대 유적 출토

1) 이기성, 2008, 「일본 조몽·야요이 전환기의 석기 변화」, 『韓國上古史學報』 59, 30쪽.

석기 가운데에서 특별한 기종이 새롭게 등장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소멸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적용할 수 없다. 만일 검토 대상 범위의 시간 폭을 확대하여 신석기시대나 초기철기시대의 석기와 비교할 때에는 전자의 방법을 동시에 이용하면 좀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다루어 보고 싶다.

II. 石器의 機能別 分類

석기의 조성비를 검토하기에 앞서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이 석기의 기능별 분류이다. 석기의 기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유물의 출토상황을 검토하는 한편, 석기의 특징적인 형태로부터 민족지적 연구성과를 이용하거나, 동일한 석기 모형을 제작하여 사용실험을 행하는 방법, 고배율 현미경으로 사용흔을 관찰하는 방법 등이 있다.²⁾ 필자는 이미 관창리유적 출토품을 대상으로 석기의 기능별 분류를 시도한 바 있는데,³⁾ 본 장에서는 이를 기본으로 하면서 최근의 연구성과를 참조하여 새로운 분류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청동기시대 유적에서 출토되는 대표적인 석기의 기능을 기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석검의 기능에 대해서 윤덕향은 유물의 형태와 출토 유구에 따라 실용성 여부를 판단하였는데,⁴⁾ 이 가운데 형태에 의한 구분은 개인적 직관에 의존하고 있어 객관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석검이 출토된 유구의 성격에 따른 구분은 이후의 연구에도 그대로 받아들여져, 무기, 생활용구, 부장품, 신분상징의기, 제의와 관련된 매납용 등 다양한 기능이 추정되고 있다.⁵⁾ 그러나 유구의 성격과 출토된 유물의 기능이 항상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입지상 우위를 보이는 대형 주거지에서 주로 마제석검이 출토된다는 연구를 참고하면,⁶⁾ 주거지 출토품 가운데에서도 상징적 성격이 강한 것의 존재가 짐작된다. 주거지에서 출토된 석검의 기능을 자르거나 베는 용도로 상정하거나⁷⁾ 식량처리용⁸⁾ 또는 수확구⁹⁾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제대로 제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석검이 찌르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임을 감안할 때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2) 손준호, 2005, 「青銅器時代 磨製石器 研究의 現況과 問題點」, 『國立公州博物館紀要』 4, 37쪽.

3) 孫峻鎬, 2003, 「磨製石器 分析을 통한 寬倉里遺蹟 B區域의 性格 檢討」, 『韓國考古學報』 51, 8~15쪽.

4) 尹德香, 1977, 『韓半島 磨製石劍의 一考察』, 서울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54~59쪽.

5) 李榮文, 1997, 「全南地方 出土 磨製石劍에 관한 研究」, 『韓國上古史學報』 24, 60~61쪽.

6) 朴姿妍, 2002, 『青銅器時代 住居址 內의 遺物分布에 대한 研究』, 嶺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67~70쪽.

7) 劉香美, 2005, 『錦江流域 青銅器時代 磨製石劍에 대한 研究』, 全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50~51쪽.

8) 林尚澤, 1999, 『天安 大興里遺蹟』, 忠南大學校博物館·서울大學校考古美術史學科, 155쪽.

9) 許義行·吳圭珍, 2006, 「無文土器時代 聚落 立地와 經濟活動 研究」, 『國立公州博物館紀要』 5, 130쪽.

무리가 있다. 따라서 유병식석검은 제작의 어려움이나 분묘에서 주로 출토되는 점 등을 볼 때 부장 전용 혹은 폐용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상징용 의기로 판단되며(그림 1-1~3), 유경식석검은 상대적으로 제작이 용이하고 주거지 등의 생활유구 출토품이 많은 점을 근거로 실제 사용을 상정할 수 있지만 찌르는 기능을 생각할 때 근접전용 무기일 가능성이 높다(그림 1-4-5). 단, 유경식 가운데 경부가 길어 석창으로 분류되는 것이 있는데(그림 1-6-7),¹⁰⁾ 이는 기본적인 장착법에서 석검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¹¹⁾ 수렵구로 상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두 번째, 석촉은 수렵구의 기능뿐만 아니라 원거리 무기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¹²⁾ 이에 대하여 필자는 민족지고고학이나 실험고고학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석촉의 형식별 기능 차이를 설정한 바 있다.¹³⁾ 그 결과 편평무경촉은 수렵용(그림 1-8~10), 능형촉은 무기로서의 기능 추정이 가능하였는데(그림 1-11~13), 이를 통하여 편평형촉의 감소와 능형촉의 증가로 요약되는 청동기시대 마제석촉의 변화상을 수렵구의 감소와 무기의 증가로 해석하였다. 물론 필자가 제시한 석촉의 형식별 기능 설정이 반드시 일대일의 대응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청동기시대 후기에 집단 간 갈등에 의한 결과물이라 추정되는 환호나 목책시설이 등장하고¹⁴⁾ 화재 주거지가 증가하는 양상¹⁵⁾ 등을 볼 때 어느 정도의 경향성으로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석촉은 청동기시대 전기에는 주로 수렵구로 이용되었으나 후기에는 무기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별 변화상을 생각하면서 조성비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석촉을 일단 수렵구로 상정하였지만, 청동기시대 후기의 석촉에 대해서는 수렵구보다는 무기로서의 기능에 무게를 두고 조성비를 검토하겠다.

세 번째로 언급할 석도에 대해서는 石毛直道가 동남아시아, 홋카이도, 만주 등지의 민속 예와 모형석도 사용실험을 통하여 날 부분을 지레의 작용점으로 하여 상하방향으로 움직여 이사를 따는 것임을 밝힌 바 있으며,¹⁶⁾ 이후 현재까지도 이러한 사용방법이 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사용흔 분석을 통한 연구가 일본인 학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면서 한반도 출토품에 대한 연구사례도 등장하였는데,¹⁷⁾ 이를 통하여 좀더 구체적인 석도의 사용방법을 파악하

10) 孫峻鎬, 2008, 「朝鮮半島における磨製石劍の展開と起源について」, 『地域・文化の考古學』, 下條信行先生退任記念論文集, 708쪽.

11) 崔夢龍, 1975, 「月出山地區의 先史遺蹟」, 『文化人類學』 7, 73~76쪽.

12) 崔盛洛, 1982, 『韓半島 磨製石鏃의 一考察』, 서울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91쪽.

13) 손준호, 2007, 「마제석촉의 변천과 형식별 기능 검토」, 『한국고고학보』 62, 105~107쪽.

14) 鄭澄元, 1991, 「初期農耕遺跡의 立地環境」, 『日韓交渉の考古學』, 六興出版, 38쪽.

15) 宋滿榮, 1996, 「火災住居址를 통해 본 中期 無文土器時代 社會의 性格」, 『古文化』 49.

16) 石毛直道, 1968, 「日本稻作の系譜(上)」, 『史林』 51-5.

17) 高瀬克範·庄田愼矢, 2004, 「大邱東川洞遺跡出土石庖丁の使用痕分析」, 『古代』 115.

손준호·조진형, 2006, 「고배울 현미경을 이용한 반월형석도의 사용흔 분석」, 『야외고고학』 1.

는 동시에 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삼각형석도는 대규모의 도장을 행하기 위하여 발생한 석도로(그림 1-14·15),¹⁸⁾ 제작을 간략화하고¹⁹⁾ 날의 사용면적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고 보는 견해²⁰⁾가 있지만, 발농사에 있어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²¹⁾ 아무튼 이 모두가 농경과 관련된 수확용 도구임은 분명하다. 단, 편주형석도의 측면 날에 대하여 일상용 칼과 같은 용도가 상정된 바 있는데(그림 1-16·17),²²⁾ 사용흔 분석 결과 이 부분에서 버과식물과의 접촉 광택이 관찰되지 않은 것을 볼 때 수확구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²³⁾

네 번째, 석부는 세부 기종별로 그 기능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타제석부는 땅을 파는 용도가 상정되며(그림 1-18),²⁴⁾ 대형의 함인석부는 벌채용(그림 1-19·20), 편인석부는 목재의 가공용으로 이용되었다고 본다.²⁵⁾ 또한, 편인석부 가운데 유구석부를 포함한 주상편인석부는 목기의 1차 가공용 석부이며(그림 1-21~23), 편평편인석부와 석착은 2차 가공용 석부로 인식되기도 한다(그림 1-24·25).²⁶⁾ 최근 석부에 대한 사용흔 분석이 시도됨으로써 이러한 기능 추정이 좀더 객관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편평편인석부의 사용흔 분석 결과 물에 불린 나무의 가공이나 가죽 벗기기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²⁷⁾ 혼암리유적 출토품의 선상흔 관찰에 의하여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상기한 바와 유사한 석부 형태별 기능 추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²⁸⁾ 따라서 타제석부는 굴지구, 함인석부는 벌채구, 편인석부는 가공구로 구분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밖에 환상석부나 다두석부는 무기의 기능을 갖는 곤봉두로 추정되는데(그림 1-26·27),²⁹⁾ 전투지휘용이나 족장의 상징구로 보는 견해도 있다.³⁰⁾ 즉, 실제 사용되었다면 무기일 가능성이 높지만 기본적으로 상징성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앞서 언급한 석검과 기능이나 성격이 유사하다. 단, 석검은 무덤에 부장되는 사례가 다수이며 출토 빈도 또한 월등히 많다는 점에서 차

18) 金相晷, 1985, 『三角形石刀의 一研究』, 嶺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47~48쪽.

19) 金元龍, 1963, 「靈岩郡 月松里의 石器文化」, 『震檀學報』 24, 141쪽.

20) 安承模, 1985, 『韓國 半月形石刀의 研究』, 서울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54쪽.

21) 孫峻鎬, 2002, 「韓半島 出土 半月形石刀의 變遷과 地域相」, 『先史와 古代』 17, 133쪽.

22) 배진성, 2005, 「無文土器時代 石器의 地域色과 組成變化」, 『사람과 돌』, 국립대구박물관, 381쪽.

23) 손준호·조진형, 2006, 「앞의 논문」(주 17), 26쪽.

24) 安在晔, 2000, 「韓國 農耕社會의 成立」, 『韓國考古學報』 43, 51쪽.

25) 佐原眞, 1977, 「石斧論」, 『考古論集』, 松崎壽和先生退官記念事業會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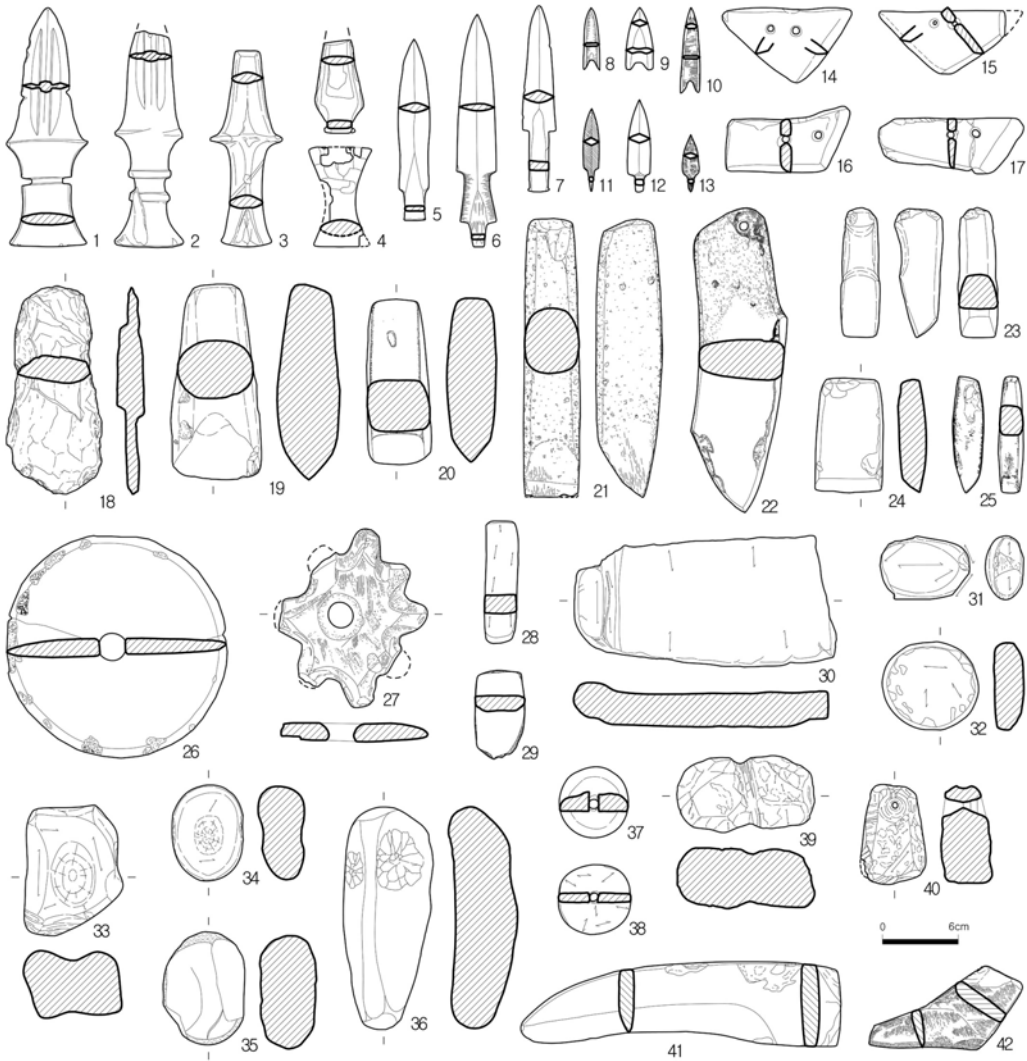
26) 裴眞晟, 2000, 『韓半島 柱狀片刃石斧의 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82~83쪽.

27) 齋野裕彦, 1998, 「片刃磨製石斧의 實驗使用痕分析」, 『仙臺市富澤遺跡保存館研究報告』 1, 19~20쪽.

28) 윤지연, 2007, 「사용흔 분석을 통한 석부의 기능 연구」, 『한국고고학보』 63, 18~19쪽.

29) 尹德香, 1983, 「石器」, 『韓國史論』 13, 國史編纂委員會, 19쪽.

30) 盧燦眞, 1984, 「江原地方의 磨製石斧」, 『論文集』 2, 翰林大學, 96쪽.



<그림 1> 청동기시대 석기 각종

1. 주교리, 2. 옥석리, 3-12-14-30-31-33-34-36-39-40. 관창리, 4-23-26-41. 송곡리, 5-16-17. 석곡리, 6. 천상리, 7. 군덕리, 8. 구룡리, 9. 마진리, 10. 명암리, 11. 원수리, 13. 죽청리, 15-22. 장천리, 18. 조동리, 19. 휴암리, 20-28-29-32-35-37-38. 백석동, 21. 진라리, 24. 나복리, 25. 황토진, 27. 신정동, 42. 사양리

이가 있다.

다섯 번째, 지석은 대표적인 석기가공구의 하나이다. 지석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크기에 있어서도 편차가 크다. 이는 지석이 일정한 형식으로 제한되지 않고 필요에 의하여 적당한 크기와 형태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지석은 크게 날을 세우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그 이외의 공작에 이용되는 것으로 구분되며, 형태에 따라 정형지석과 부정형지석으로 나누기도 한다.³¹⁾ 사용

31) 村田裕一, 2002, 「工具-砥石」, 『考古資料大觀』 9, 小學館, 197~198쪽.

면의 거칠기 정도에 따라 구분되기도 하는데, 다양한 입자의 지식들은 석기 제작 공정의 각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용방법으로는 고정된 지식에 대상물을 마찰시킴으로써 마연하는 방법과 반대로 지식을 움직여 가공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³²⁾ 실제 유적 출토품을 관찰하면 중소형의 지식이 다수 확인되는데(그림 1-28·29), 이는 휴대용일 가능성이 높다. 철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농경지의 작업에 있어서 반드시 지식이 이용되는 민족지 사례를 통하여³³⁾ 도구의 재가공이 작업 현장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상황을 짐작할 수 있으며, 철기에 비하여 날의 마모가 심한 석기의 경우에는 이러한 필요성이 더욱 대두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중소형 지식이 다량으로 출토되는 양상은 휴대용 지식이 다수 요구되고 또 이용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연석, 마석, 석명(대석), 요석, 고석 등은 모두 식물 식량의 처리에 이용된 석기로 추정된다. 이러한 석기들은 지식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형태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형태상의 세분이 불가능하다. 다만, 연석은 마석과 함께 제분구로(그림 1-30~32), 석명은 요석, 고석과 세트를 이루어 견과류 과쇄용구로 각각 상정되는데(그림 1-33~36),³⁴⁾ 이 또한 명확한 구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두 합하여 식량처리구로 다룰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석기들이 반드시 식량의 처리에만 이용된 것은 아니다. 관창리유적 출토 마석 중에는 적색 안료로 추정되는 물질의 부착 예가 있는데(그림 1-31),³⁵⁾ 이는 마석이나 연석이 토기제작 시 안료나 혼화재의 분쇄 등에도 이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고석의 경우 석기제작소로 추정되는 신안 복룡리유적³⁶⁾ 출토 예도 있어, 석명 등과 세트를 이루어 석기제작에도 이용되었음이 분명하다. 마석과 고석에 대한 사용흔 분석 결과에서도 식량 처리와 석기제작의 흔적이 모두 확인된 바 있다.³⁷⁾ 하지만 석기 형태나 단순 관찰만으로는 구분이 어려우며, 실제로 하나의 석기가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담당하였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따로 세분하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방추차는 방직구(그림 1-37·38), 어망추는 어구로 구분할 수 있다. 추는 석제뿐만 아니라 토제도 확인되는데, 기능상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함께 다루고자 한다. 방추차와 달리 어망추는 여러 개가 모여 하나의 도구를 이루기 때문에 수량상으로 다른 석기와 비교하기 곤란하며, 석기 간 비율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³⁸⁾ 따라서 어구는 조성비의 비교에 있어서는

32) 宮下健司, 1985, 「日本における研磨技術の系譜」, 『論集日本原史』, 吉川弘文館, 256쪽.

33) 神野信, 2004, 「砥石のある風景」, 『時空をこえた對話』, 慶應義塾大學民族學考古學專攻設立25周年記念論集, 182쪽.

34) 平井勝, 1991, 『彌生時代の石器』, ニュー・サイエンス社, 97쪽.

35) 孫峻鎬, 2003, 「앞의 논문」(주 3), 14쪽.

36) 李榮文·金京七·曹根佑, 1996, 「新安 伏龍里 出土 石器類」, 『碩啓尹容鎮教授 停年退任紀念論叢』.

37) 池谷勝典, 2003, 「礫石器の使用痕研究」, 『古代』 113, 107쪽.

38) 林尙澤, 2001, 「中西部 新石器時代 石器에 대한 初步的 檢討 I」, 『韓國新石器研究』 1, 61쪽.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단지 어망추의 존재를 통하여 어로활동을 추정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석추 가운데 약간 대형에 구멍이 뚫린 것을 무게를 다는 용도로 보거나(그림 1-40)³⁹⁾ 흙이 파인 것을 방직 시에 사용하는 고드랫들로 파악한 견해 등이 있지만(그림 1-39),⁴⁰⁾ 이러한 형태의 석추들이 서해안 근처의 유적에서만 확인되며⁴¹⁾ 동일한 형태와 재질의 소위 ‘九州型石錘’가 낚시용 추로 추정된 바 있어⁴²⁾ 본고에서는 어구로 분류하였다.

이밖에 출토 예가 소수에 불과하여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석기들의 기능을 추정하면, 먼저 투석은 수렵구, 찰절구와 천공구는 석기가공구에 포함시키는 데에 무리가 없다. 석검은 일단 수확구로 분류할 수 있지만(그림 1-41), 출토량이 석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수이기 때문에 주로 이용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일본의 경우 대형의 석도나 大型直緣刃石器의 사용흔 분석 결과 수확 후의 짚이나 잡초를 제거하기 위한 식물 절단구의 기능이 상정되는데,⁴³⁾ 이러한 형태의 석기가 출토되지 않는 한반도에서 석검이 이와 같은 기능을 담당했을 가능성도 있다. 석검과 형태가 유사하지만 날이 바깥쪽에 형성되어 있는 소위 ‘동북형석도’는 일상생활용의 나이프로 그 기능이 추정된 바 있어(그림 1-42),⁴⁴⁾ 이에 따라 식량처리구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옥 등의 장신구류는 기본적으로 생활유구의 출토 예가 많지 않고 관옥 등 여러 개가 모여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것이 1점씩 출토되는 사례가 다수인 점을 볼 때, 단순한 장신구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거주민이 소유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석기에 대하여 각 기종별 기능 추정을 시도해 보았다. 이를 구분된 기능별로 다시 정리하면, 상정의례구, 수렵구, 수확구, 굴지구, 별채구, 가공구, 석기가공구, 식량처리구, 방직구, 어구의 총 10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상정의례구에는 석검·환상석부·다두석부·장신구가 해당된다. 다음으로 석촉·석창·투석은 수렵구, 반월형석도·석검은 수확구에 각각 포함된다. 석부 가운데 타제석부는 굴지구, 합인을 포함한 양인석부는 별채구, 그리고 주상편인석부·유구석부·편평편인석부·석착 등의 편인석부는 가공구로 세분할 수 있다. 또, 지석·천공구·찰절석기는 석기가공구로, 연석·마석·석명·요석·고석과 동북형석도는 식량처리구로 분류되며, 추 가운데 방추차는 방직구, 어망추는 어구로 각각 상정 가능하다.

한편, 최근 석기의 기능 추정에 있어서 가장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리형석기에 대하여 마지막 막으로 간단히 언급하고 싶다. 부리형석기의 기능은 흑요석기 수정구,⁴⁵⁾ 굴지구,⁴⁶⁾ 휴대용 지

39) 金元龍, 1969, 「仁川出土의 一石錘」, 『歷史教育』 11-12, 283쪽.

40) 吳相卓·姜賢淑, 1999, 『寬倉里遺蹟』, 亞洲大學校博物館, 170쪽.

41) 孫峻鎬, 2006, 「韓日 靑銅器時代 石器 比較」, 『嶺南考古學』 38, 17쪽.

42) 下條信行, 1984, 「彌生·古墳時代の九州型石錘について」, 『九州文化史研究所紀要』 29, 94~95쪽.

43) 齋野裕彦·松山聰·山村信榮, 1999, 「大型石庖丁の使用痕分析」, 『古文化談叢』 42, 46~47쪽.

44) 裴眞晟, 2007, 「東北型石刀에 대한 小考」, 『嶺南考古學』 40, 10쪽.

45) 과학원출판사, 1959, 『회령 오동 원시유적 발굴보고』, 유적발굴보고 7, 37쪽.

석,⁴⁷⁾ 수확구,⁴⁸⁾ 제사유물⁴⁹⁾ 등으로 다양하게 상정되고 있는데, 실제 사용흔 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용에 의한 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⁵⁰⁾ 실생활에 이용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최근 발표된 논문 가운데에는 이러한 사용흔 분석 결과를 부정하기 위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있다.⁵¹⁾ 크게 세 가지로 첫째 기존 사용흔 분석의 관찰이 대부분 흠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 둘째 광택은 마제에서만 관찰 가능하기 때문에 타제인 부리형석기에는 사용흔 분석이 부적절하다는 점, 셋째 현미경 사용상의 문제로 대상물의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초점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과 빛을 비추는 방향에 따라 광택이 달라지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문제점은 모두 적당한 지적이라 할 수 없다. 우선 高瀨克範의 분석에는 분명히 흠과 날 부분에 대한 관찰이 동시에 이루어져 있다. 또, 그가 사용한 고배율법의 사용흔 분석은 원래부터 구석기시대의 타제석기가 주요 분석 대상이며, 따라서 이미 타제석기를 대상으로 한 수많은 연구 성과가 발표되어 있기 때문에 광택이 마제에서만 관찰된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 한편, 현미경의 특성에 대한 언급도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있는데, 고저차에 의해 초점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고배율 현미경을 이용할 경우 마제석기 관찰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상물의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초점을 조정하면서 관찰하면 된다. 그리고 사용흔 분석에 이용되는 금속현미경은 관찰 대상에 대하여 항상 수직으로 빛이 비추이기 때문에 빛의 방향이 바뀌는 일도 절대 없다. 결국 이와 같이 고배율 현미경을 이용한 사용흔 분석에 대하여 부적절한 비판이 이루어진 것은, 이러한 분석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한 오해 때문이라 생각된다. 물론 아직까지 분석된 부리형석기의 수량이 소수에 불과하고 실제유적에서의 출토량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가 존재하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가장 객관적인 분석 방법에 의하면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굳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양한 기능 추정 가운데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의례용구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

46) 李相吉, 1998, 「無文土器時代の 生活儀禮」, 『環濠集落と農耕社會の形成』, 九州考古學會-嶺南考古學會 第3回 合同考古學大會, 253~254쪽.

47)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2001, 『晉州 大坪里 漁隱 2地區 先史遺蹟』 I, 210쪽.

48) 俞炳球, 2006, 「一名 ‘부리형석기’ 用途에 대한 小考」, 『石軒鄭澄元教授 停年退任記念論叢』, 229~230쪽.

49) 安在皓, 2004, 「中西部地域 無文土器時代 中期聚落의 一樣相」, 『韓國上古史學報』 43, 16쪽.

50) 高瀨克範, 2003, 「Use-wear analysis of ‘beak-shaped stone tool’ from Dongho-dong site, Daegu, Korea」, 『大邱 東湖洞遺蹟』, 嶺南文化財研究院, 459쪽.

高瀨克範·손민주, 2007, 「晉州 生物産業團地 助成敷地 內 耳谷里遺蹟 出土 부리형석기·반월형석도의 使用痕 分析」, 『東亞文化』 23, 60쪽.

51) 李宣味, 2007, 『소위 ‘부리형석기’의 用途에 관한 研究』, 慶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55~56쪽.

Ⅲ. 聚落別 生計類型 檢討

본 장에서는 앞에서 기능별로 분류된 석기의 조성비를 통하여 청동기시대 취락의 생계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출토 양상이 양호한 경우라면 단일 취락 내 유구별 생계활동 복원이 가능하며 실제로 이러한 분석도 시도된 바 있지만,⁵²⁾ 유구의 폐기 원인과 후퇴적 과정에 따라 유물 잔존율에 차이가 많다는 점을 생각할 때 취락 단위의 조성비 검토를 행하는 것이 해석상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한 유적의 조성비만을 비교하여 생계유형을 상정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즉,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석기와 쉽게 부서지거나 잃어버리기 쉬운 석기는 제작량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석기의 출토량을 그대로 특정 생계유형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다른 유적과의 조성비 비교를 통하여 상대적인 많고 적음을 살펴보는 것이, 해당 유적의 생계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라 하겠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유적은 대단위 취락 가운데 기능 파악이 가능한 석기의 출토량이 100점을 넘는 것으로 하였다. 석기 출토량이 소수인 유적 자료는 조성비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⁵³⁾ 그리고 유구의 성격에 따라 유물의 출토 양상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일한 조건 부여를 목적으로 주거지 출토품만을 대상으로 삼았다.⁵⁴⁾ 즉, 생활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는 분묘 출토품뿐만 아니라, 폐기와 관련된 다른 성격의 행위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패총, 저장공, 구상유구, 경작유구 등의 출토 석기를 모두 제외하였다. 이밖에 석기의 총량은 100점이 넘지만 하나의 주거지에서 출토된 석기의 양이 전체 출토량의 75%에 달하는 신매리유적의 경우도, 전체 취락의 조성비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검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⁵⁵⁾

석기는 기능상 생계활동에 이용된 것만으로 한정하였다. 상징의례구로 분류된 석검, 환상석부, 다두석부, 장신구 등과 뚜렷한 기능을 파악할 수 없는 석재, 미제품 등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단, 어구에 대해서는 하나의 주거지에서 다량으로 출토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전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석기 간 비율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아 개체 수만 명기하였다. 석기의 대부분이

52) 兪炳一, 2007, 「聚落의 生計 및 生業活動 檢討」, 『蔚州 外光里 聚落遺蹟』, 蔚山發展研究院文化財센터.

53) 酒井龍一은 석기 출토량이 50~100점 이상 되는 것을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가진 자료로 인정한 바 있다. 단, 50점 정도라면 다른 유적 출토품과의 비교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다.

酒井龍一, 1986, 「石器組成からみた彌生人の生業行動パターン」, 『文化財學報』 4, 奈良大學文學部文化財學科, 19~20쪽.

54) 필자의 기존 분석에서는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주거지 이외의 생활유구 출토품과 함께 유적의 시기가 단일 시기인 경우에는 지표채집품도 검토 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따라서 주거지 출토품만을 대상으로 제시된 석기 출토량과는 차이가 있는데, 본고의 내용이 좀 더 정밀한 분석이라 하겠다.

孫峻鎬, 2003, 「앞의 논문」(주 3), 16~17쪽.

孫峻鎬, 2006, 「앞의 논문」(주 41), 19쪽.

55) 지현병·홍주희·이경기, 2007, 『新梅里 10-47-1番地 遺蹟』, 江原文化財研究所.

<표 1> 청동기시대 대단위 취락 출토 석기의 기능별 분류

유적명	시기	입지	주거지 기수	수렵구	수확구	굴지구	별채구	가공구	석기 가공구	식량 처리구	방직구	어구	계 (%)	참고 문헌
혼암리	전기	구릉	16	98(19.4)	28(5.5)	19(3.8)	27(5.3)	63(12.5)	164(32.5)	93(18.4)	13(2.6)	75	505(100)	①
백석동B	전기	구릉	94	28(15.0)	24(12.9)	0(0)	26(14.0)	7(3.8)	59(31.7)	23(12.4)	19(10.2)	2	186(100)	②
갑산리	전기	구릉	13	18(15.0)	27(22.5)	0(0)	10(8.3)	20(16.7)	7(5.8)	8(6.7)	30(25.0)	10	120(100)	③
삼정1리	전기	구릉	59	24(12.2)	29(14.7)	0(0)	26(13.2)	19(9.6)	39(19.8)	50(25.4)	10(5.1)	86	197(100)	④
미사리	전기	충적대지	37	48(23.3)	6(2.9)	14(6.8)	18(8.7)	37(18.0)	54(26.2)	13(6.3)	16(7.8)	131	206(100)	⑤
용암리	전기	충적대지	78	101(26.7)	28(7.4)	6(1.6)	88(23.2)	52(13.7)	43(11.3)	39(10.3)	22(5.8)	2	379(100)	⑥
송죽리	전기	충적대지	61	32(15.8)	28(13.9)	0(0)	7(3.5)	29(14.3)	57(28.2)	23(11.4)	26(12.9)	29	202(100)	⑦
옥곡동	전기	충적대지	91	32(16.1)	13(6.5)	3(1.5)	12(6.0)	28(14.1)	80(40.2)	16(8.1)	15(7.5)	6	199(100)	⑧
대평리옥방	전기	충적대지	8	10(8.4)	24(20.2)	5(4.2)	9(7.5)	14(11.8)	30(25.2)	12(10.1)	15(12.6)	4	119(100)	⑨
자계리 I	후기	구릉	48	89(43.2)	20(9.7)	0(0)	3(1.5)	51(24.7)	27(13.1)	10(4.9)	6(2.9)	0	206(100)	⑩
관창리B	후기	구릉	100	170(28.4)	25(4.2)	5(0.8)	6(1.0)	73(12.2)	196(32.8)	77(12.9)	46(7.7)	7	598(100)	⑪
관창리F	후기	구릉	35	68(35.4)	5(2.6)	1(0.5)	7(3.7)	36(18.8)	54(28.1)	10(5.2)	11(5.7)	3	192(100)	⑫
송국리	후기	구릉	41	65(24.9)	36(13.8)	0(0)	6(2.3)	28(10.7)	94(36.0)	12(4.6)	20(7.7)	0	261(100)	⑬
용강리기두	후기	구릉	21	16(12.7)	1(0.8)	1(0.8)	2(1.6)	22(17.4)	66(52.4)	16(12.7)	2(1.6)	1	126(100)	⑭
김단리	후기	구릉	92	51(41.1)	11(8.9)	0(0)	7(5.7)	18(14.5)	27(21.8)	5(4.0)	5(4.0)	110	124(100)	⑮
봉계리	후기	구릉	18	28(27.7)	7(6.9)	0(0)	2(2.0)	8(7.9)	46(45.5)	5(5.0)	5(5.0)	7	101(100)	⑯
방기리	후기	구릉	43	9(7.3)	16(13.0)	2(1.6)	4(3.3)	12(9.8)	67(54.5)	11(8.9)	2(1.6)	3	123(100)	⑰
굴화리장검	후기	구릉	27	18(13.0)	25(18.1)	10(7.2)	16(11.6)	23(16.7)	23(16.7)	19(13.8)	4(2.9)	49	138(100)	⑱
용암리	후기	충적대지	30	27(24.1)	7(6.3)	3(2.7)	25(22.3)	26(23.2)	9(8.0)	5(4.5)	10(8.9)	1	112(100)	⑲
천전리	후기	충적대지	72	46(30.6)	11(7.3)	1(0.7)	16(10.7)	26(17.3)	22(14.7)	13(8.7)	15(10.0)	4	150(100)	⑳
송정리갈두	후기	충적대지	45	171(62.6)	9(3.3)	2(0.7)	10(3.7)	24(8.8)	43(15.7)	10(3.7)	4(1.5)	12	273(100)	㉑
대곡리도룡	후기	충적대지	72	44(41.1)	10(9.4)	0(0)	1(0.9)	16(14.9)	21(19.6)	5(4.7)	10(9.4)	14	107(100)	㉒
대평리옥방	후기	충적대지	166	181(13.0)	86(6.1)	42(3.0)	53(3.8)	89(6.4)	673(48.3)	234(16.8)	36(2.6)	79	1,394(100)	㉓
대평리어은	후기	충적대지	50	39(10.7)	20(5.5)	5(1.4)	16(4.4)	38(10.4)	194(53.3)	41(11.3)	11(3.0)	11	364(100)	㉔
계(%)				1,413(22.1)	496(7.8)	119(1.9)	397(6.2)	759(11.9)	2,095(32.8)	750(11.8)	353(5.5)	646	6,382(100)	

① 金元龍·任孝宰·崔夢龍·呂重哲·郭秉勳, 1973, 『欣岩里 住居址』, 서울大學校附屬博物館·全考古人類學科; 서울大學校附屬博物館·同考古人類學科, 1974, 『欣岩里 住居址』; 서울大學校博物館·同考古學科, 1976, 『欣岩里 住居址』 3; 任孝宰, 1978, 『欣岩里 住居址』 4, 서울大學校博物館·同人文大考古學科; 서울대학교박물관, 2004-2005, 『혼암리유적 출토 석기 보고서』.

② 李南奭·李 勳·李賢淑, 1998, 『白石洞遺蹟』, 公州大學校博物館; 李南奭·李賢淑, 2000, 『白石·萊成洞遺蹟』, 公州大學校博物館.

③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6, 『慶州 甲山里遺蹟』.

④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7, 『浦項 三政1里遺蹟』 I·II.

⑤ 漢沙里先史遺蹟發掘調査團, 1994, 『漢沙里』 1; 漢沙里先史遺蹟發掘調査團, 1994, 『漢沙里』 2; 林炳泰·崔恩珠·金武重·宋滿燾, 1994, 『漢沙里』 3, 漢沙里先史遺蹟發掘調査團; 任孝宰·崔鍾澤·林尚澤·吳世筵, 1994, 『漢沙里』 4, 漢沙里先史遺蹟發掘調査團; 尹世英·李弘鍾, 1994, 『漢沙里』 5, 漢沙里先史遺蹟發掘調査團.

⑥ 池賢炳·金權·中洪周希, 2007, 『龍岩里』, 江原文化財研究所.

⑦ 金權·九·裴成燾·金才喆, 2007, 『金泉 松竹里遺蹟』 II, 啓明大學校行素博物館.

⑧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5, 『慶山 玉谷洞遺蹟』 I.

⑨ 趙榮濟·柳昌煥·李瓊子·孔智賢, 1999, 『晉州 大坪里 玉房 2地區 先史遺蹟』, 慶尙大學校博物館; 趙榮濟·柳昌煥·宋永鎮·孔智賢, 2001, 『晉州 大坪里 玉房 3地區 先史遺蹟』, 慶尙大學校博物館; 李亨求, 2001, 『晉州 大坪里 玉房 5地區 先史遺蹟』, 鮮文大學校; 鄭義道·崔鐘赫, 2001, 『晉州 玉房 7地區 先史遺蹟』, 慶南文化財研究院; 國立晉州博物館, 2001, 『晉州 大坪里 玉房 1地區 遺蹟』 I·II; 慶南考古學研究所, 2002, 『晉州 大坪 玉房 1-9地區 無文時代 集落』;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2003, 『晉州 大坪里 玉房 8地區 先史遺蹟』.

⑩ 羅建柱, 2006, 『唐津 自開里遺蹟』 I, 忠清文化財研究所.

⑪ 李弘鍾·姜元杓·孫峻鎬, 2001, 『寬倉里遺蹟』, 高麗大學校埋藏文化財研究所.

⑫ 吳相卓·姜賢淑, 1999, 『寬倉里遺蹟』, 亞洲大學校博物館.

⑬ 姜仁求·李健茂·韓永熙·李康承, 1979, 『松菊里』 I, 國立中央博物館; 지건길·안승모·송의경, 1986, 『松菊里』 II,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1987, 『松菊里』 III; 金吉植, 1993, 『松菊里』 V, 國立公州博物館; 國立扶餘博物館, 2000, 『松菊里』 VI.

⑭ 최인선·박태중·송미진, 2003, 『光陽 龍江里 機頭遺蹟』, 順天大學校博物館.

⑮ 釜山大學校博物館, 1995, 『蔚山 檢丹里 마을遺蹟』.

⑯ 嶺南大學校博物館, 2000, 『蔚山 鳳溪里遺蹟』.

⑰ 金亨坤·俞炳一·高恩英, 2003, 『蔚山 芳基里 青銅器時代 聚落』, 國立昌原大學校博物館.

⑱ 金度憲·崔守亨, 2005, 『蔚山 屈火里 長劍遺蹟』 I, 蔚山文化財研究院; 金度憲·權志英·崔守亨, 2006, 『蔚山 屈火里 長劍遺蹟』 II, 蔚山文化財研究院.

⑲ 김권중·홍주희·남귀화·김민지, 2008, 『泉田里』, 江原文化財研究所.

㉑ 湖南文化財研究院, 2006, 『長興 葛頭遺蹟』 I; 湖南文化財研究院, 2006, 『長興 葛頭遺蹟』 II.

㉒ 全南大學校博物館, 1989, 『住岩岾 水沒地域 文化遺蹟 發掘調査報告書』 VI; 全南大學校博物館, 1990, 『住岩岾 水沒地域 文化遺蹟 發掘調査報告書』 VII.

㉓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2001, 『晉州 大坪里 漁隱 2地區 先史遺蹟』 I.

파손품 또는 미제품이며 완제품의 출토 예는 극히 빈약한데, 이는 생활유구인 주거지 출토품만을 대상으로 한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파손품이나 미제품이라 하더라도 석기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석기의 재가공으로 인하여 기능의 변화가 상정되는 경우는 변화된 기능에 입각하여 분류하였으며, 두 가지의 기능이 동시에 생 각되는 경우에는 주로 사용되는 용도를 추정하여 구분하였다.

보고서가 출간된 대단위 취락 유적 가운데 석기 출토량이 100점을 넘는 것은 모두 22개이다 (표 1). 유적의 입지에 따라서는 구릉지와 충적대지로 구분된다. 시기는 송국리문화의 등장을 획 기로 하여 전기와 후기로 나누었으며, 한 유적에 양 시기가 공존하는 경우에는 주거지를 시기별 로 구분하여 석기의 출토량을 산출하였다. 울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해안지역의 유적에 대해서는 검단리유형을 청동기시대 후기로 보는 견해⁵⁶⁾를 받아들여 시기 구분을 행하였다. 이에 따라 자개 리 I 유적에서 10기, 봉계리유적에서 1기, 방기리유적에서 6기, 천전리유적에서 3기의 주거지가 각각 다른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중 백석동유적과 미 사리유적은 연구자에 따라 일부 유구의 후기 병행단계가 상정되고 있으며 필자 또한 이러한 견해 에 찬동하는 바이지만,⁵⁷⁾ 석기상에서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 있어서는 유적 전체를 동일 시기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송죽리유적의 경우 보고자는 원형 주거지의 후 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중복관계를 근거로 돌대문토기단계 이전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과 약하고 있어⁵⁸⁾ 모든 주거지를 전기로 상정하였다. 한편, 용암리유적은 보고자에 의해 1단계-전 기, 2단계-과도기, 3단계-후기로 구분되고 있는데,⁵⁹⁾ <표 1>에서는 일단 잠정적으로 과도기인 2 단계를 전기에 포함시켰지만 뒤에서 다시 시기를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유적 간의 조성비 비교를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도면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2>이다. 기능에 따라 구분된 특정 석기의 조성비가 다른 유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면, 해당 취락에서 이에 상응하는 생계경제 방식에 보다 집중하였던 상황을 짐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먼저 수렵구는 자개리 I·검단리·송정리 갈두·대곡리 도룡유적 등에서 높은 비율로 확인되는데, 이 들이 모두 후기에 해당하고 있어 전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수렵구보다는 무기로서의 사용량이 증 가한 것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특히 월등히 높은 조성비를 보인 갈두유적에 대해서는 취락 분석을 통하여 영역 갈등이 상정된 바 있어,⁶⁰⁾ 이에 부합되는 내용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수확구

56) 裴眞晟, 2005, 「檢丹里類型的 成立」, 『韓國上古史學報』 48, 17~1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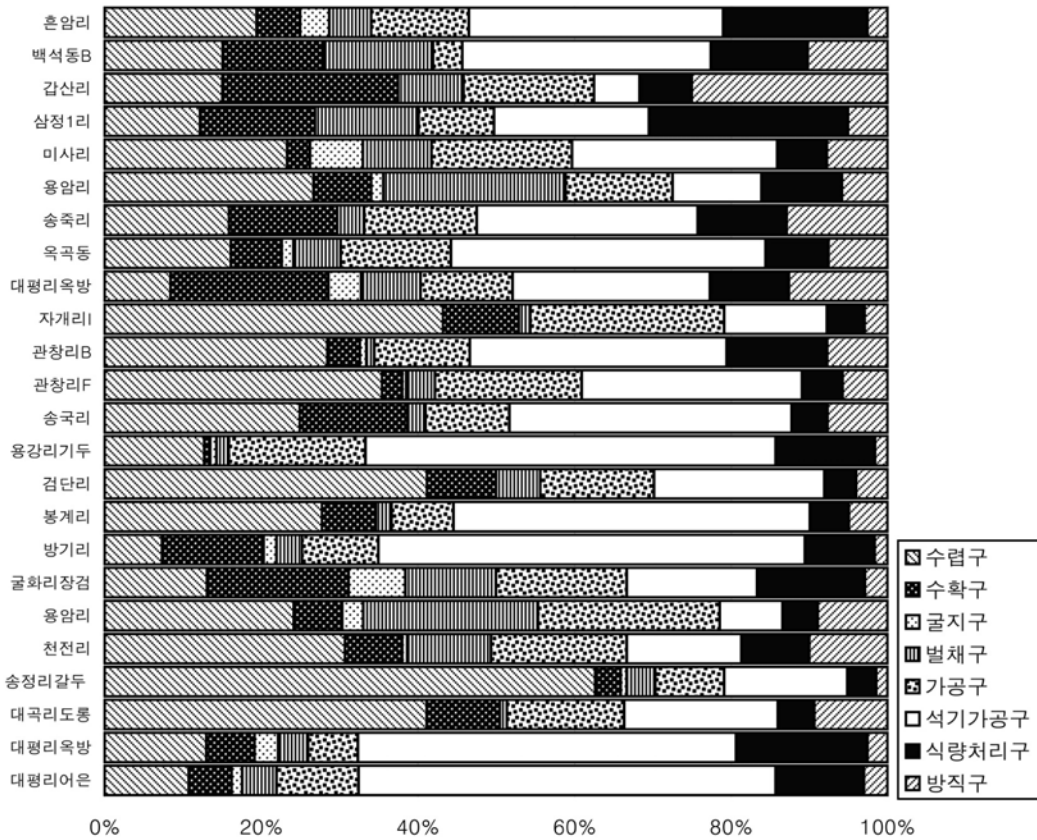
57) 李眞旼, 2005, 「中部地域 無文土器時代 前-中期 文化에 대한 一考察」, 『송국리문화를 통해 본 농경사 회의 문화체계』, 서경, 67쪽.

김한식, 2006, 「경기지역 역삼동유형의 정립과정」, 『고고학』 5-1, 22쪽.

58) 김권구, 2007, 「考察」, 『金泉 松竹里遺蹟』 II, 啓明大學校行素博物館, 280쪽.

59) 김권중, 2007, 「遺蹟의 段階 設定 및 編年」, 『龍岩里』, 江原文化財研究所, 551~552쪽.

60) 이종철, 2008, 「탐진강유역의 송국리형 주거문화」, 『탐진강유역의 고고학』, 제16회 호남고고학회 학 술대회, 5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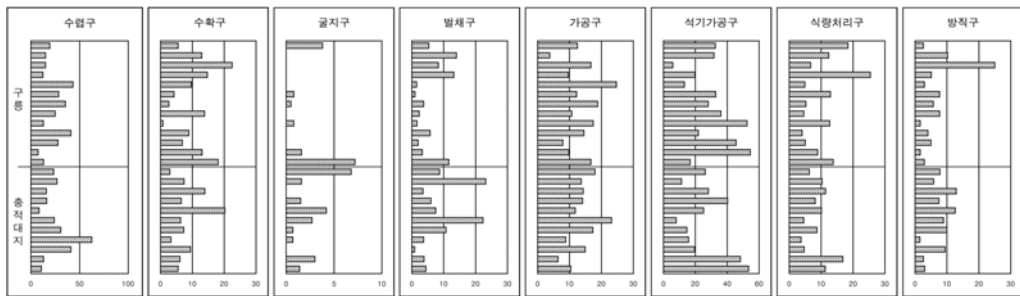


<그림 2> 유적별 석기 조성비

는 갑산리·대평리 옥방유적에서, 굴 지구는 미사리·굴화리 장검유적에서, 벌채구와 가공구는 용암리 유적에서 각각 높은 조성비를 나타내고 있다. 석기가공구는 대평리의 옥방과 어은유적, 용강리 기두유적에서 두드러지는데, 이 세 유적에서는 석기가공구뿐만 아니라 다량의 미제품과 박편, 석재 등이 출토되어 다른 유적에 비하여 석기의 제작이 활발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공방지로서의 성격을 갖는 주거지가 다수 확인된 용암리나 천전리유적에서 석기가공구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점은 의문이다. 양 유적에서는 다량의 석기 제작 부산물이 출토되었기 때문에, 상기한 세 유적과 마찬가지로 빈번한 제작이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지식의 출토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볼 때, 마연 이전 단계까지의 반성품 상태로 제작된 석기를 다른 취락에 공급하였을 가능성도 있다.⁶¹⁾ 이밖에 식량처리구는 삼정1리유적, 방직구는 갑산리유적에서 각각 두드러진 조성비를 보인다. 한편, 어구는 충적대지에 입지한 유적이나 구릉의 경우 해안 또는 강가에 위치한 유적에서 주로 확인된다.

61) 이는 석기 제작의 여러 유형 가운데 ‘前半型’에 해당한다.
酒井龍一, 1991, 「彌生時代の石器生産」, 『季刊考古學』 35, 63쪽.

이 가운데 수확구와 굴지·벌채·가공구인 석부류는 넓은 의미에서 모두 농경 관련 도구라 할 수 있다. 굴지구나 벌채구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지만 밭농사와 관련된 도구로 상정되며,⁶²⁾ 가공구의 경우는 제작된 목기의 대다수가 논농사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모두를 농경 관련 도구로 합하여 조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유적에서 최소 16.5%부터 최대 54.5%(평균 31.5%)까지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검토 대상 취락 모두가 어느 정도 농경에 의존한 생계경제 방식을 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농경 이외에 수렵과 채집생활도 당시인들에게는 중요한 경제활동이었을 것이다. 수렵의 증거로는 무기로만 볼 수 없는 다량의 석촉을 들 수 있으며, 식량처리구 가운데 석명·요석·고석 등은 견고한 종자를 부수고 내부의 식용부분을 취하는 데 이용된 것으로 추정된 바 있어⁶³⁾ 채집활동을 나타내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석기들은 시기나 입지에 상관없이 모든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적에서 농경에 기반을 둔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동시에 자연지리적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렵이나 채집활동, 경우에 따라서는 어로활동까지 병행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생업활동이 존재하는 것이 농경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다.⁶⁴⁾



<그림 3> 입지별 석기 조성비 비교

그런데 이러한 농경 중심의 생계 방식은 취락의 입지와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취락 입지별 석기 조성비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그림 3>에서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위쪽이 구릉에 입지한 유적 출토 석기 조성비이며, 아래쪽은 충적대지에 위치한 유적의 조성비이다. 한 눈에 확인되는 것은 기능상 분류된 각 석기의 조성비에 있어서 입지별로 뚜렷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생계활동이 입지 환경과 상관성을 갖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에도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구릉과 충적지라는 환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유사한 조성비가 확인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그 이유를 검토 대상 유적이 모두 대단위 취락이라는 점에서 찾고자 한다. 즉, 대단위 취락에는 다수의 거주민이 존재

62) 安在晔, 2000, 「앞의 논문」(주 24), 5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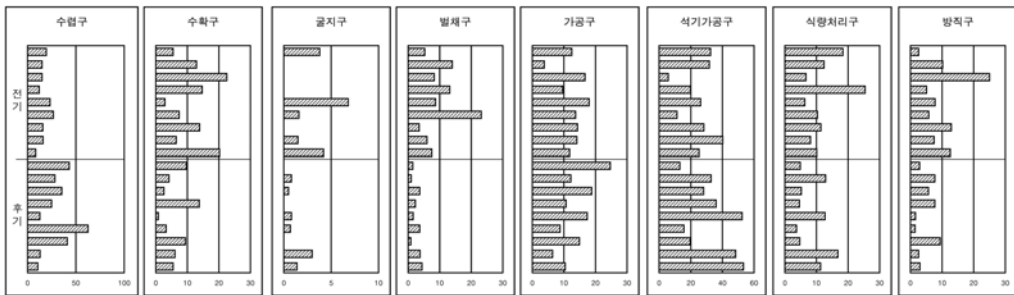
63) 李弘鍾, 1997, 「韓國 古代의 生業과 食生活」, 『韓國古代史研究』 12, 9~10쪽.

64) 申숙정, 2001,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생업경제」, 『韓國上古史學報』 35, 25쪽.

하는데, 이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집단이 선택한 생계경제 방식에 있어서 주변 환경의 차이를 뛰어넘는 공통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입지에 따라 농경의 세부적인 방식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충적대지나 구릉에 상관없이 대규모 취락은 농경과 함께 수렵·채집·어로 등의 생계활동에 적합한 곳에 위치하며, 이러한 다양한 생계활동의 병행만이 식량생산과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가능하게 하였을 것이다.

IV. 石器 組成比의 變化와 그 意味

마지막으로 시간의 흐름에 의한 석기 조성비의 변화상과 그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송국리문화의 등장과 함께 청동기시대 후기가 시작되는데, 송국리문화가 논농사를 바탕으로 한 정착적 농경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석기 조성비의 시기적 차이는 논농사의 보급으로 인한 생계유형의 변화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22개 유적 가운데에는 전기의 양상이 뚜렷한 변화 없이 점진적으로 후기까지 이어진 것들이 존재한다. 모두 송국리문화가 확산되지 않은 지역에서 조사된 유적으로, 동남해안지역의 검단리·봉계리·방기리·굴화리 장검유적과 강원지역의 용암리·천전리유적의 후기 단계가 이에 해당한다. 이 유적들에서는 송국리문화의 특징적인 요소인 송국리형주거지, 외반구연토기, 삼각형석도 등이 거의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송국리문화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벗어난, 점진적인 후기로의 변화 과정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적들을 포함할 경우 변화의 양상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본고에서는 이 유적들을 제외한 후 석기 조성비의 시기적인 변화상을 살펴보았다.



<그림 4> 시기별 석기 조성비의 변화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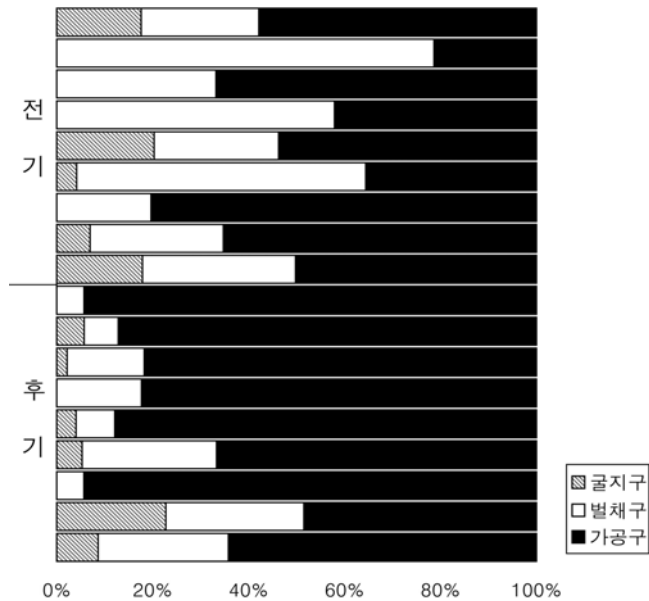
상기한 6개 유적을 제외하여 시기별 변화상을 도면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4>이다. 석기의 기능별 변화상을 살펴보면, 먼저 수렵구는 전기보다 후기의 증가세가 뚜렷하다. 이는 수렵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촉의 출토량이 늘어난 것으로, II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동기시대 후기에 무기로써의 석촉 사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조성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진 것이라 판단된다. 청동기시대 후기에 확인되는 환호나 목책시설의 등장, 화재 주거지의 증가, 석촉 형식의 변화 등

과 함께, 무기로서 석촉 사용량의 증가 또한 집단 간 갈등의 심화를 나타내는 고고학적 양상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후기의 석촉이 모두 무기로만 이용되어 전기부터 이루어지던 수렵행위가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수렵은 여전히 식량생산의 다양성 확보와 부족한 영양분 보충을 위하여 존재하였을 것이며, 특히 농경의 확산과 더불어 害獸驅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수렵⁶⁵⁾이 후기에 좀 더 빈번해졌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다음으로 수확구는 감소 추세를 보인다. 수확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반월형석도인데, 논농사의 보급으로 농경이 확대된 시점에서 오히려 수확구가 줄어들고 있어 주목된다. 청동기시대 후기에 등장하는 삼각형석도가 양쪽 날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개량형이라는 견해⁶⁶⁾를 받아들인다면, 적은 수의 석도만으로도 이전 시기와 동일한 수확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도구의 효율성 증대가 개체 수의 감소를 가져온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삼각형석도의 기능적 장점이라는 것이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추론일 뿐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 없으며, 설혹 그 장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조성비에 있어서 뚜렷한 변화를 가져올 정도로 효율성에 차이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한편, 석검 등의 다른 수확구가 특별히 후기에 증가하는 양상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 수확방법에서의 변화를 생각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일본열도 각지에서 발견되고 있는 목제 수확구로의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는,⁶⁷⁾ 아직 한반도에서의 출토 예가 없기 때문에 자료의 증가를 기다려야 할 것 같다.

이밖에 굴지구, 벌채구, 가공구는 모두 석부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굴지구나 벌채구는 발농사, 가공구는 논농사와 관련된 도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동기시대 후기에 굴지구와 벌채구가 감소하는 양상은 발농사의 비중이 줄어든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반대로 가공구의 증가는 송국리문화의 등장에 의한 논농사의 활성화와 잘 부합하는 내용이라 하겠다. 그런데 <그림 4>를 보면 굴지구·벌채구가 시간적 흐름에 따라 뚜렷하



<그림 5> 굴지구·벌채구·가공구의 시기별 조성비 비교

65) 곽중철, 2003, 「가야의 생업」, 『가야 고고학의 새로운 조명』, 혜안, 448쪽.

66) 崔淑卿, 1960, 「韓國摘穗石刀의 研究」, 『歷史學報』 13, 35쪽.

67) 山崎頼人, 2008, 「收穫具(穗摘具·鎌)」, 『季刊考古學』 104, 68~70쪽.

계 감소하는데 반하여 가공구의 증가 양상은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이는 그만큼 전기단계에도 목제 도구의 사용량이 빈번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굴지구·별채구가 가공구의 조성비를 상대 비교하면 가공구의 증가 양상이 좀더 뚜렷하게 관찰된다(그림 5).

이러한 석부류의 증감은 송국리문화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점진적인 변화상을 보여주는 유적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용암리유적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단계-전기, 2단계-과도기, 3단계-후기로 구분되며, 각 단계에 석기가 모두 100점 이상 출토되고 있어 한 유적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석기 변화상을 살피기에 양호한 자료이다. 용암리유적에서 출토된 석기의 기능별 조성비를 나타낸 것이 <표 2>로, 구분된 각 석기류의 조성비가 단계별로 거의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하나의 유적에서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이 생계유형에 큰 변화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주변의 환경이 크게 바뀔 정도의 시간 폭이 아니라면 대단위 취락이 선택한 생계경제 방식이 그렇게 쉽게 변화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용암리유적이 송국리문화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생계방식이 크게 변경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이유야 어쨌든 전기 단계로부터의 점진적인 변화상이 석기 조성비에서도 확인된 셈인데, 이 중에서도 다른 석기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구분될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별채구의 감소와 이에 상응하는 가공구의 증가 양상이다. 즉, 송국리문화의 간접적인 영향권이라고 볼 수 있는 강원지역의 용암리유적에서도 다른 석기류의 변화가 거의 없는 가운데 별채구와 가공구의 조성비는 반비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표 2> 용암리유적 출토 석기의 단계별 조성비 변화상

단계	시기	주거지 기수	수렵구	수확구	굴지구	별채구	가공구	석기 가공구	식량 처리구	방직구	어구	계
1	전기	29	33 (26.2)	8 (6.3)	2 (1.6)	35 (27.8)	9 (7.2)	17 (13.5)	14 (11.1)	8 (6.3)	0	126 (100)
2	과도기	49	68 (26.9)	20 (7.9)	4 (1.6)	53 (20.9)	43 (17.0)	26 (10.3)	25 (9.9)	14 (5.5)	2	253 (100)
3	후기	30	27 (24.1)	7 (6.3)	3 (2.7)	25 (22.3)	26 (23.2)	9 (8.0)	5 (4.5)	10 (8.9)	1	112 (100)

마지막으로 석기가공구, 식량처리구, 방직구의 변화상을 보면, 석기가공구는 후기가 되면서 증가하는 반면 식량처리구와 방직구는 감소하고 있다. 석기가공구의 증가는 석기의 생산활동이 증대되었음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소비량이 늘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자급적 생산을 넘어 교역을 위한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청동기시대 후기에 감소세를 보이는 식량처리구 중에는 견과류 파쇄용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를 채집활동과 결부시켜 생각하면, 전기에 농경 이외의 생계 방식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방직구는 특히 전기에 해당하는 갑산리유적의 조성비가 두드러지며, 전반적으로 전기에 방직활동이 빈번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과 같이 시기적 변화에 따르는 석기 조성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무기의

증가, 수확구의 감소, 굴지.별채구의 감소와 이에 상응하는 가공구의 증가, 석기가공구의 증가와 식량처리구.방직구의 감소로 정리할 수 있다. 물론, 구분된 기능별로 시기적인 차이가 뚜렷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공존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경향성으로 보기에 는 무리가 없다. 이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논농사의 확산에 의한 밭농사의 상대적 감소는 논농사의 집약화를 통한 생산량의 증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또, 무기 사용의 증가는 이렇게 증대된 생산물을 차지하기 위한 집단 간의 갈등이 빈번해졌음을 나타내는 양상이라 하겠다. 한편, 석기가공구의 증가에 대해서는 간단히 석기의 사용량이 늘어난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교역을 위한 생산량 증대로 상정한다면 초기 복합사회로 진입한 청동기시대 후기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V. 맺음말

이상과 같이 석기 조성비를 통하여 청동기시대 생계유형과 시기적인 변화상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미 생계경제를 복원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의 접근이 이루어져 비교적 구체적인 연구성과들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 연구의 전제라 할 수 있는 석기의 기능 추정에 발표문의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에 반하여, 본격적인 생계활동의 복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할 이야기가 많지 않았다. 나름대로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었으나, 또 한 번 능력의 부족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튼 석기 분석을 통하여 생계경제의 복원을 시도하였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싶다. 부족한 부분은 차후에 보완하고자 한다. 원래의 계획은 청동기시대 사회경제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싶었으나, 발표 원고의 마감일이 북경 올림픽 일정과 겹치는 바람에 처음의 뜻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초 자료의 정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발표문을 학보에 게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에는 꼭 보충하여 좀 더 짜임새 있는 논고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 姜仁求·李健茂·韓永熙·李康承, 1979, 『松菊里』 I, 國立中央博物館.
- 慶南考古學研究所, 2002, 『晉州 大坪 玉房 1·9地區 無文時代 集落』.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6, 『慶州 甲山里遺蹟』.
- _____, 2007, 『浦項 三政1里遺蹟』 I·II.
- 과학원출판사, 1959, 『회령 오동 원시유적 발굴보고』, 유적발굴보고 7.
- 곽종철, 2003, 「가야의 생업」, 『가야 고고학의 새로운 조명』, 혜안.
- 國立扶餘博物館, 2000, 『松菊里』 VI.
- 국립중앙박물관, 1987, 『松菊里』 III.
- 國立晉州博物館, 2001, 『晉州 大坪里 玉房 1地區 遺蹟』 I·II.
-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2001, 『晉州 大坪里 漁隱 2地區 先史遺蹟』 I.
- _____, 2003, 『晉州 大坪里 玉房 8地區 先史遺蹟』.
- 金度憲·權志瑛·崔守亨, 2006, 『蔚山 屈火里 長劍遺蹟』 II, 蔚山文化財研究院.
- 金度憲·崔守亨, 2005, 『蔚山 屈火里 長劍遺蹟』 I, 蔚山文化財研究院.
- 김권구, 2007, 「考察」, 『金泉 松竹里遺蹟』 II, 啓明大學校行素博物館.
- 金權九·裴成嫻·金才喆, 2007, 『金泉 松竹里遺蹟』 II, 啓明大學校行素博物館.
- 김권중, 2007, 「遺蹟의 段階 設定 및 編年」, 『龍岩里』, 江原文化財研究所.
- 김권중·홍주희·남귀희·김민지, 2008, 『泉田里』, 江原文化財研究所.
- 金吉植, 1993, 『松菊里』 V, 國立公州博物館.
- 金相冕, 1985, 『三角形石刀의 一研究』, 嶺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金元龍, 1963, 「靈岩郡 月松里의 石器文化」, 『震檀學報』 24.
- _____, 1969, 「仁川出土의 一石錘」, 『歷史教育』 11·12.
- 金元龍·任孝宰·崔夢龍·呂重哲·郭乘勳, 1973, 『欣岩里 住居址』, 서울大學校附屬博物館·全考古人類學科.
- 김한식, 2006, 「경기지역 역삼동유형의 정립과정」, 『고고학』 5-1.
- 金亨坤·俞炳一·高恩英, 2003, 『蔚山 芳基里 靑銅器時代 聚落』, 國立昌原大學校博物館.
- 羅建柱, 2006, 『唐津 自開里遺蹟』 I, 忠淸文化財研究院.
- 盧熾眞, 1984, 「江原地方의 磨製石斧」, 『論文集』 2, 翰林大學.
- 劉香美, 2005, 『錦江流域 靑銅器時代 磨製石劍에 대한 研究』, 全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漢沙里先史遺蹟發掘調查團, 1994, 『漢沙里』 1.
- _____, 1994, 『漢沙里』 2.
- 朴姿妍, 2002, 『靑銅器時代 住居址 內的 遺物分布에 대한 研究』, 嶺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裴眞晟, 2000, 『韓半島 柱狀片刃石斧의 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_____, 2005, 「檢丹里類型의 成立」, 『韓國上古史學報』 48.
- _____, 2005, 「無文土器時代 石器의 地域色과 組成變化」, 『사람과 돌』, 국립대구박물관.
- _____, 2007, 「東北型石刀에 대한 小考」, 『嶺南考古學』 40.
- 釜山大學校博物館, 1995, 『蔚山 檢丹里 마을遺蹟』.
- 서울대학교박물관, 2004·2005, 『혼암리유적 출토 석기 보고서』.
- 서울大學校博物館·同考古學科, 1976, 『欣岩里 住居址』 3.
- 서울大學校附屬博物館·同考古人類學科, 1974, 『欣岩里 住居址』.
- 孫峻鎬, 2002, 「韓半島 出土 半月形石刀의 變遷과 地域相」, 『先史와 古代』 17.
- _____, 2003, 「磨製石器 分析을 통한 寬倉里遺蹟 B區域의 性格 檢討」, 『韓國考古學報』 51.
- _____, 2005, 「靑銅器時代 磨製石器 研究의 現況과 問題點」, 『國立公州博物館紀要』 4.
- _____, 2006, 「韓日 靑銅器時代 石器 比較」, 『嶺南考古學』 38.
- _____, 2007, 「마제석축의 변천과 형식별 기능 검토」, 『한국고고학보』 62.
- _____, 2008, 「朝鮮半島における磨製石劍の展開と起源について」, 『地域·文化の考古學』, 下條信行先生退任記念論文集.
- 손준호·조진형, 2006, 「고배울 현미경을 이용한 반월형석도의 사용흔 분석」, 『야외고고학』 1.
- 宋滿榮, 1996, 「火災住居址를 통해 본 中期 無文土器時代 社會의 性格」, 『古文化』 49.
- 신숙정, 2001,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생업경제」, 『韓國上古史學報』 35.
- 安承模, 1985, 『韓國 半月形石刀의 研究』, 서울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安在皓, 2000, 「韓國 農耕社會의 成立」, 『韓國考古學報』 43.
- _____, 2004, 「中西部地域 無文土器時代 中期聚落의 一樣相」, 『韓國上古史學報』 43.
- 嶺南大學校博物館, 2000, 『蔚山 鳳溪里遺蹟』.
- 吳相卓·姜賢淑, 1999, 『寬倉里遺蹟』, 亞洲大學校博物館.
- 俞炳球, 2006, 「一名 ‘부리형석기’ 用途에 대한 小考」, 『石軒鄭澄元教授 停年退任記念論叢』.
- 俞炳一, 2007, 「聚落의 生計 및 生業活動 檢討」, 『蔚州 外光里 聚落遺蹟』, 蔚山發展研究院文化財센터.
- 尹德香, 1977, 『韓半島 磨製石劍의 一考察』, 서울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_____, 1983, 「石器」, 『韓國史論』 13, 國史編纂委員會.
- 尹世英·李弘鍾, 1994, 『漢沙里』 5, 漢沙里先史遺蹟發掘調查團.
- 윤지연, 2007, 「사용흔 분석을 통한 석부의 기능 연구」, 『한국고고학보』 63.
- 이기성, 2008, 「일본 조몽·야요이 전환기의 석기 변화」, 『韓國上古史學報』 59.
- 李南奭·李賢淑, 2000, 『白石·業成洞遺蹟』, 公州大學校博物館.
- 李南奭·李 勳·李賢淑, 1998, 『白石洞遺蹟』, 公州大學校博物館.

- 李相吉, 1998, 「無文土器時代の 生活儀禮」, 『環濠集落と農耕社會の形成』, 九州考古學會·嶺南考古學會 第3回 合同考古學大會.
- 李宣味, 2007, 『소위 ‘부리형石器’의 用途에 관한 研究』, 慶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李榮文, 1997, 「全南地方 出土 磨製石劍에 관한 研究」, 『韓國上古史學報』 24.
- 李榮文·金京七·曹根佑, 1996, 「新安 伏龍里 出土 石器類」, 『碩晤尹容鎮教授 停年退任紀念論叢』.
- 이종철, 2008, 「탐진강유역의 송국리형 주거문화」, 『탐진강유역의 고고학』, 제16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 李眞旻, 2005, 「中部地域 無文土器時代 前·中期 文化에 대한 一考察」, 『송국리문화를 통해 본 농경사회의 문화체계』, 서경.
- 李亨求, 2001, 『晉州 大坪里 玉房 5地區 先史遺蹟』, 鮮文大學校.
- 李弘鍾, 1997, 「韓國 古代의 生業과 食生活」, 『韓國古代史研究』 12.
- 李弘鍾·姜元杓·孫峻鎬, 2001, 『寬倉里遺蹟』, 高麗大學校埋藏文化財研究所.
- 林炳泰·崔恩珠·金武重·宋滿榮, 1994, 『湊沙里』 3, 湊沙里先史遺蹟發掘調查團.
- 林尚澤, 1999, 『天安 大興里遺蹟』, 忠南大學校博物館·서울大學校考古美術史學科.
- _____, 2001, 「中西部 新石器時代 石器에 대한 初步的 檢討 I」, 『韓國新石器研究』 1.
- 任孝宰, 1978, 『欣岩里 住居址』 4, 서울大學校博物館·同人人文大考古學科.
- 任孝宰·崔鍾澤·林尚澤·吳世筵, 1994, 『湊沙里』 4, 湊沙里先史遺蹟發掘調查團.
- 全南大學校博物館, 1989, 『住岩댐 水沒地域 文化遺蹟 發掘調查報告書』 VI.
- 全南大學校博物館, 1990, 『住岩댐 水沒地域 文化遺蹟 發掘調查報告書』 VII.
- 鄭義道·崔鐘赫, 2001, 『晉州 玉房 7地區 先史遺蹟』, 慶南文化財研究院.
- 鄭澄元, 1991, 「初期農耕遺跡의 立地環境」, 『日韓交涉의 考古學』, 六興出版.
- 趙榮濟·柳昌煥·宋永鎮·孔智賢, 2001, 『晉州 大坪里 玉房 3地區 先史遺蹟』, 慶尙大學校博物館.
- 趙榮濟·柳昌煥·李瓊子·孔智賢, 1999, 『晉州 大坪里 玉房 2地區 先史遺蹟』, 慶尙大學校博物館.
- 지건길·안승모·송의정, 1986, 『松菊里』 II, 국립중앙박물관.
- 池賢柄·金權中·洪周希, 2007, 『龍岩里』, 江原文化財研究所.
- 지현병·홍주희·이경기, 2007, 『新梅里 10·47-1番地 遺蹟』, 江原文化財研究所.
- 崔夢龍, 1975, 「月出山地區의 先史遺蹟」, 『文化人類學』 7.
- 崔盛洛, 1982, 『韓半島 磨製石鏃의 一考察』, 서울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崔淑卿, 1960, 「韓國摘穗石刀의 研究」, 『歷史學報』 13.
- 최인선·박태홍·송미진, 2003, 『光陽 龍江里 機頭遺蹟』, 順天大學校博物館.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5, 『慶山 玉谷洞遺蹟』 I.
- 許義行·吳圭珍, 2006, 「無文土器時代 聚落 立地와 經濟活動 研究」, 『國立公州博物館紀要』 5.
- 湖南文化財研究院, 2006, 『長興 葛頭遺蹟』 I.

- 湖南文化財研究院, 2006, 『長興 葛頭遺蹟』 II.
- 高瀨克範, 2003, 「Use-wear analysis of 'beak-shaped stone tool' from Dongho-dong site, Daegu, Korea」, 『大邱 東湖洞遺蹟』, 嶺南文化財研究院.
- 高瀨克範·손민주, 2007, 「晋州 生物産業團地 助成敷地 内 耳谷里遺蹟 出土 부리형석기·반월형석도의 使用痕 分析」, 『東亞文化』 2·3.
- 高瀨克範·庄田愼矢, 2004, 「大邱東川洞遺跡出土石庖丁の使用痕分析」, 『古代』 115.
- 宮下健司, 1985, 「日本における研磨技術の系譜」, 『論集日本原史』, 吉川弘文館.
- 山崎頼人, 2008, 「收穫具(穗摘具·鎌)」, 『季刊考古學』 104.
- 石毛直道, 1968, 「日本稻作の系譜(上)」, 『史林』 51-5.
- 神野信, 2004, 「砥石のある風景」, 『時空をこえた對話』, 慶應義塾大學民族學考古學專攻設立25周年記念論集.
- 齋野裕彦, 1998, 「片刃磨製石斧の實驗使用痕分析」, 『仙臺市富澤遺跡保存館研究報告』 1.
- 齋野裕彦·松山聰·山村信榮, 1999, 「大型石庖丁の使用痕分析」, 『古文化談叢』 42.
- 佐原眞, 1977, 「石斧論」, 『考古論集』, 松崎壽和先生退官記念事業會編.
- 酒井龍一, 1986, 「石器組成からみた彌生人の生業行動パターン」, 『文化財學報』 4, 奈良大學文學部文化財學科.
- _____, 1991, 「彌生時代の石器生産」, 『季刊考古學』 35.
- 池谷勝典, 2003, 「礫石器の使用痕研究」, 『古代』 113.
- 村田裕一, 2002, 「工具-砥石」, 『考古資料大觀』 9, 小學館.
- 平井勝, 1991, 『彌生時代の石器』, ニューサイエンス社.
- 下條信行, 1984, 「彌生·古墳時代の九州型石錘について」, 『九州文化史研究所紀要』 29.